

第23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10.2.8. ~ 2.1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3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 109
- II.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1
- III.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7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123
 - 2.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5
 - 3.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14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2월 8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3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객종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객종수

지금부터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2월 8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10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곽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를 하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곽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석환

의사과장 김석환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와 안건 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

[제237회-제1차 본회의]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0년 2월 1일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 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11시 03분)

● 의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하겠습니다.

2월 9일은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2월 1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

(11시 04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9일 1일간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기관 현황 파악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회의록(별첨 3)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곽정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 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표창 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를 우승기, 공로패, 포상금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에 공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37회-제1차 본회의]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유족 등 대리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의 표창 수여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박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08분)

● 의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박정수, 부의장 김부용,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별첨 2)
- ▶ 2010년도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회의록(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광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차, 윤기성 행정예산과장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립형 사립교 지정 관련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광정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부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부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교

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2월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의 종류를 변경하고 표창 시에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명을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명 변경에 따라 대상자를 수정하고 구체화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수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표창권자를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서 표창 종류에 따른 표창방법

과 표창 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서 공정한 표창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과 표창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조항, 본청, 직속 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장의 표창 수여 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본 조례 제명 개정 에 따라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표창목적, 표창대상, 표창의 종류, 표창방법 및 부상, 공적심의위원회 설치 사항 등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여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 보완한 것으로써 조례 전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공적심의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추후 타 조례에서 사용

되고 있는 공적심사라는 용어를 공적심의로 개정할 필요성과 안 제9조 제2항에서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함에 있어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등은 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폐회)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광정수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

0 출석위원 : 6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정무.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10. 2.

의 장 곽 정 수 ^{정수}
위 원 성 영 용 ^{성영용}
위 원 이 상 일 ^{이상일}
의사국장 구 명 회 ^{구명회}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10. 2. 8. ~ 2. 10.(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월 8일(월) 11:00 16: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2. 8. ~ 2. 10.(3일간) 2. 2010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산 회	의장제의 의장제의 제안설명
2월9일(화) 10:00	<input type="checkbox"/> 2010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보고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5개 기관	본회의휴회
2월10일(수)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1월 29일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1
----------	-------

제출연월일 : 2010. 1.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함
- 나. 표창대상을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함(안 제2조)
- 다.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표창권자를 교육감 및 교육장 등으로 정함(안 제8조)
- 마. 표창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副賞)의 종류를 구체화(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 연수 특전 등)함(안 제9조제2항)

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표창권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아.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유족 등 대리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자.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장의 표창 수여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아. 다른 조례의 개정

본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함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함

1)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2)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 다음 각호의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09. 12. 11. ~ 12. 31.(의견없음)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5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원이 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관리과 총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은 국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상)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9조”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2조”로 한다.

제7조 단서 외의 부분 본문과 제10조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각각 한다.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안)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안)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안)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뒷면)

㉔주요학(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㉕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별지 제5호서식]

표 장 내 장

표장 번호	피 표 장 자				표 장 내 용	표 장 종류	표 년월일	기 날 인	확 날 인	비 고
	직명	성명	연령	성별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제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u></p>	<p><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에서</u>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u>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u>의한 표창은</u> 본도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기관·단체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행한다.</p>	<p>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u>따른 표창은</u>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p>
<p>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u>의한 표창은</u>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p>	<p>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u>따른 표창은</u>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p>
<p>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u> 2. <u>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u> 3. <u>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u> <p><u><신 설></u></p>	<p>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u> 2. <u>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u> <p><u><삭 제></u></p> <p>제5조(창안상) ① <u>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u></p>

현행	개정안
<p>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p> <p>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p><삭 제> <삭 제></p>
<p>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2. 본도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 또는 공헌한 경우 3. 대외적으로 본도 교육행정기관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p>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대외적으로 충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p>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각 기관장이 행할 수 있다.</p>	<p>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p>
<p>제7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표창은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③패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 및 표창 추천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도 교육청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2. 하급교육청에는 "충청북도 ○○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p>	<p>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p> <p>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p>

현행	개정안
<p>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관리과 총무담당이 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p>
<p>제9조(표창추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추천은 본청의 각국·담당관 및 각 과장과(교육장 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 과장 포함)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의뢰기관장 포함)이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p> <p>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지역교육청은 국장·과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p> <p>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p> <p>제12조(이중 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3조(표창대상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p> <p>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p> <p>제16조(표창대상)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하여야 한다.</p> <p>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9420호, 2009.2.6, 일부개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 3)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10. 2. 9.(화)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대리 김부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김학봉 부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정인영 원장님, 중앙도서관 홍진표 관장님, 학생교육문화원 안세열 원장님, 학생종합수련원 김영구 원장님, 학생외국어교육원 김경식 원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직속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석하신 기관장을 대표해서 단재교육연수원 정인영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인영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값진 지도 조언을 베풀어주시는 김부웅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의 효율적인 정착 그리고 당면한 교육현안 문제에 도움을 주시고자 오늘과 같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6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그동안 교육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이제 충북교육은 내실있는 발전은 물론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6개 직속기관은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 지원, 미래창조 고 격 연수, 지식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진흥, 전인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교양 증진 소질 개발 및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북 인재육성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속기관 전 직원은 창조 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자기 희생과 봉사로 열심히 노력하여 충북 교육 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정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직속기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다음에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다음에 학생종합수련원, 마지막으로 학생외국어교육 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 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0 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질문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의 순서는 위원님들 신청 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가능한한 간략하게 해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김학봉 부장님 업 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 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 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대리 김부웅

김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원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셨기 때 문에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가량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신 후에 11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이어서 직속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 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성장되는 계기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김학봉 부장님, 아주 이 보고의 타이틀이 좋아요. 세계를 가슴에 품는 글로벌 인재 육성 그래서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게 기초 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교사제 운영, 그래서 교수학습성취도평가자료 개발 보급, 특히 특별연구교사를 선정을 하고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일반화 자료를 2,600부나 보급하신 거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의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교실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그를 위한 교사연수 강화를 통해서 실험수업 지도역량을 지도해 주신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자료가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

가나 여러 평가 성적이 충분히 월등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기관에서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교사평가, 교원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젊은 선생님들은 뭐 아주 성적도 우수하고 적응도 아주 잘하는데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실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자기 역량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꾸준히 일반화 자료 같은 거 보급하실 계획이시죠?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 이상일 위원

선생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수업에 임할 때 좋은 성적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업무를 좀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가 여러 가지 지적인 면에서는 월등한데 아직 교직사회에 정착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사에 대한 교직사회 정착 훈련 같은 것을 잘해 주시는데 이것을 대인관계라든지 학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소홀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관리자 및 중견교사의 교육 활동 능력을 좀 신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들이 회계 업무에 좀 밝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예산이 학교로 직접 배분이 돼서 단위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교장선생님은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규정 같은 것을 무시하고 자꾸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일반직 행정직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그런 데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영어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지금 젊은 교사들은 괜찮은데 지금 노령교사들이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특히 발음이 옛날식 발음인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합니다, 발음도 좋고. 또 회화능력이라든지 발음 같은 것도 교정이 될 수 있도록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뭐 부탁 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상관은 없는 건데 며칠전에

서울대학교를 많이 합격시킨 고등학교가 쪽 발표된 게 있어요.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데 빼놓고 학생을 열 명 이상 서울 대학에 합격한 학교의 공통점을 누가 분석을 해봤더니 학생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두 번째로 맞춤형 수준별 이동 수업 교육이 잘 이루어졌더라 하는 거하고, 세 번째가 선생님들의 열정이 뛰어났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가 지도한 것 이외에 뭐를 했다면 독서교육을 상당히 강화했다. 그래 우리 충북에서도 하루에 20분 또는 30분, 어떤 학교는 80분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서 1년에 50권 내지 70권의 책을 읽도록 한다 하는 게 그 학교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책을 읽고 논술을 쓰는 훈련을 시키고 또 과학교육을 통해서 과학 논문 비슷하게 논술교육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 책 읽는 습관 같은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교사나 학부모를 통해서 좀...

일본이 앞으면 책 읽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옛날 얘기라고 그러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출근을 할 때나 여가 시간에나 책을 많이 읽는 나라라고 우리도 배웠는데 최근에 책을 그렇게 안 읽는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고 거품이고 뭐고 도요타 같은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게 그렇게 리콜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책 읽는 습관을 안 하니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누가 그런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논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 읽는 습관을 하고 관장님 그 뒤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아주 잘 만들으셨어요.

제가 충주에도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이 500명이나 돼, 작은 시에. 그래 거기에 넣은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래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게 어머니 나라말을 못 쓰게 해요. 어머니 나라말도 쓰게 하고 그 어머니가 빨리 우리 한글을 익혀가지고 아이들이 그 어머니 나라말까지 배우면 두 개 다 배우는 건데, 하여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교육에 좀 신경써주시고 또 다문화 도서도 확충해서 그 나라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안세열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이제 각종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과학관 운영은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전체적으로 지금 학습과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활용도가 많아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당초에 기대했던 거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는 그랬지만 해마다 자료가 비슷하면 점점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공연장이나 대강당도 지금 활용도를 보니까 연 30회 정도는 한 달에 두 번 남짓하게 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 좀더 그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원장님.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여건도 있지만, 예술의전당이 지금 보수공사중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 경우에 거의 비지 않고 평일에도 대관이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수영장도 운영하는데 힘드신데 지금 수지균형을 보니까 운영수익이 11억 9,400,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자죠?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수영장이 좀 적자입니다.

● 이상일 위원

물론 이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한 거는 아니지. 학생들과 주민에 대한 그 학습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자가 계속되면 어려우니까 하여튼 운영 수입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학생종합수련원 김영구 원장님, 진천은 4월에서 9월에 운영을 하는데 어찌 학생 활용도가 해마다 높아져요, 떨어져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연간 한 3,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올해는 4월부터 9월간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여가문화교실에서 수능 끝나는 11월, 12월달도 진천 수련원에서 맡아가지고 학교에 직접 20여 개 찾아가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모두들 밥 해먹고 활동하는 걸 귀찮아한다 말이야, 모두 다 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잘된 시설 가서 좀 쉬었다 오

려고 하는 생각이지 이런 데 가서 손수 밥도 같이 해먹고 아이들하고 체험학습도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거기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아직 개울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목욕은 못하고?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예

● 이상일 위원

지금 한 3급수 정도 됩니까, 거기까?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급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외국어교육원 김경식 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부체험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북부가 돼서 3월에 개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접때 보니까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우선 인적자원이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의 영어선생님 들을 어떻게 차출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막막한 것 같으니까 원장님께서 거기 자주 지도를 해 주셔서 3월 달에 개원을 해서 운영되는데 좀 지장이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없도록.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현재 담당자들을 저희 교육원으로다가 모시고서 협의를 가졌고요 또 이제 파견 선생님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다 모시고서 협의회를 가졌고요, 제가 이제 그 분들을 모시고서 그 협의회 과정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충북에 있는 모두 외국어교육, 남부든 북부든 진천 본원이든 청주센터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같은 가족이 되자고 그래서 앞으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로다가 그렇게 드나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체계를 다 갖추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선 외국어교육원만 해도 노하우가 있고 체제가 안정이 됐으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저네도 가봤더니 시설은 좋은데 그 인적구성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원장님이 잘 지도해서 남부, 북부 체험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진천 본원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시에 들은 것 같은데 정무 위원님이 조금 먼저 들었습니다.

정무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요. 잘 알아들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충북교육의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감동연수, 신나는 체험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등 직속기관의 다양하고 알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희망찬 2010년도의 밑그림을 짐작할 수 있어 정말 흐뭇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주요업무계획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을 보면 2009년도 주

요업무 추진 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교육연구에 있어서, 맨 아래 충북교육사 제2집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2집 1,600부를 발간 보급 예정이라고 해서, 예정이라면 2010년도 발간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09년 추진성과라고 하면서 보급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정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사 1년간 저희들이 이제 편찬을 해서 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 2일날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간을 해서 보관중이고 교육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60쪽에 달하는 30년 역사가 모든 게 총괄 정리가 됐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정이라고 하길래 어제 지난해 것을 예정이라고 했는가 잘 이해가 안 돼서.

30쪽에 보면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자료 개발이 있습니다.

개발 교과는 초·중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7편의 개발 분량은 각 교과 1차시 분이라 했습니다.

우수 교사들의 수업 동영상 자료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될 것 같은데 개발만 하고

일선 학교 보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교과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기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동영상 자료개발을 해서 우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자료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일선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수 교사 수업을 보고 누구든지 처음에는 모방이라고 하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남의 수업을 많이 봐야 자기 수업의 도약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동영상 우수자료를 많이 개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2009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주요업무 12, 13쪽에서 살펴보니 교육연수 실적이 137개 과정에 9,489명, 지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이 17개 과정에 1,474명, 학부모 연수 실적이 10개 지역에 2,014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주요업무 26, 27, 28쪽을 보면 교원연수과정이 118개 과정에 5,560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19개 과정에 1,617명, 학부모 연수 과정이 10개 지역에 1,900명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니까 교원연수과정은 작년보다 19개 과정에 3,929명이 줄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은 작년보다 2개 과정에 196명이 늘었습니다. 학부모 연수 과정은 작년보다 지역은 같은데 114명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교원연수는 줄었고 지방공무원 교육은 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입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총 훈련시킨 것이 1만 2,977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당초는 한 8,000명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10년도 연수 인원이 줄은 이유는 저희 계획이 매년 18%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외부에서 연수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수 의뢰 오는 것은 여기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현

재는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2010년도 연말에 가면은 약 예년도 보편은 18%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수의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편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있어 열람실 운영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개관일 수가 341일인데 입관 고객수가 68만 7,051명으로 하루에 2,000명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좌석이 1,264석이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열람과 직원이 사서직 6명, 기능직 5명, 기타 9명 해서 20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실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중앙도서관 홍준표입니다.

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개관시간을 지금 밤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일요일도 6명이 근무하고 또 야간까지 근무하게 되니까 업무 과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를 위한다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거기 직원 중에 기타 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평생교육사라고 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또 밤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또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3명을 뽑았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근무하는 그런 보조인원을 뽑았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살펴보니 정말 다양하고 사업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산 범위가 37억 1,400만원인데 기관 운영을 제외하고는 체육교육에 9억 8,600만원으로 전체 대비 26.5%를 복지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맨아래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지 균형 유지에 있어 수영장 운영 수입이 11억 9,463만 5,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쪽에 수영인구 저변 확대에 있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수지 균형 수입목표액을 9억 9,270만원으로 전년 수입액보다 약 2억원을 적게 책정하였는데 왜 이렇게 책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입니다.

학생수영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을 잡고 있는 것이 수영장의 강습이라든지 해서 하는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들 강화훈련을 3개 레인 내지 4개 레인을 학생들, 선수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다보니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들, 레인 수에 비해서 조금 들어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정무 위원

수입을 조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와 2억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 학생들한테 안 받으면 좋겠어요. 단가를 아주 낮게 해서 아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는 할 수 없는가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학생들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수영장 전체가 그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렇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18쪽에 2009년도 수련실적 총괄표를 보니까 177개 학교에 교직원 교육 가족 해서 연인원 5만 8,80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격감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목표액이 얼마가 되는가요, 이게.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6만 5,0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3,000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한 6만 9,0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급년에도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을 연기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기관이 많이 나올 텐데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꾸 홍보하시고 세일즈맨처럼 방문해서 많은 기관이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 정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맨뜨트머리 28쪽, 29쪽을 보니까 2010년도 진천 본원과 청주센터의 연간 교육일정이 도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진천 본원의 전 지역 대상 프로그램이 좀 빈약한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앞으로 남부, 북부, 진천 본원, 청주센터 현재 수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도 가고 내년 정도 가면은 거의 수혜율이 30% 가고 현재는 남부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서 전체적인 아이들 운영하는 것은 이제 지난해까지는 중학교 1학년 심화 과정이 이제 도내 전부를 이제 했는데 올해는 신설과정이 중학교 심화 상급과정이 2학년 과정이 3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과정들은 북부, 남부, 또 진천 본원, 청주센터를 해서 본원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그렇게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지금 남부에도 영어센터가 있고 북부에

도 이제 이번 3월 1일자로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청주센터 있고 이렇게 되면 본원의 할 일이 뭔가, 자꾸 축소가 될 것 같은데.....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축소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남부센터, 북부센터 뿐만 아니라 그 지역별로다가 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그런 지역별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거점학교요. 거기까지 우리들 같은 프로그램으로다가 앞으로는 도와드리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축소라든지 그런 개념 없이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다가 활동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올해의 새로운 사업은 이동캠프, 원어민 수혜가 결핍된 지역에 산골을 찾아가는 이동캠프를 12번 운영을 하고요 특수학교를 찾아가는, 찾아가는 이동캠프를 운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생 2학년 심화 상급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정무 위원

청주센터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6학년들 기초과정인가요? 90명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화가 1년에 다 되는가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원어민이 청중 열 분 있고, 진천 본원은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수에 비례한 아이들 그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 정무 위원

청주지역에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기별인원을 90명이면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청주에 원어민이 열 분인데요 그래서 그 한 학급을 10명씩 해서 9개 학급을 해서 90명을 잡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 정무 위원

이게 딱 잡아서 나온 거예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알맞은 수가 10명입니다. 원어민 한 분에 아이들 10명을 반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 정무 위원

6학년이 한 번 지나가면 가들은 이제 못 받는 애들은 평생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4학년은 월, 화 과정에 아이들이 또 오 후에 시간 내서 하고요, 5학년은 수, 목에 참여하고 6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5일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분은 15분 내에 끝내 주시지요.

성영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우리 6개 원장님과 판장님들 그동안에 일류 충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먼저 이 주요업무계획서를 내가 받아보고서 조금 휘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종합수련원하고 과학연구원은 이래 해서 기관명칭을 달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없이 그냥 해놨거든요. 휘장에 관한 그 관계를 우리 김영구 원장님, 옛날 총무과에 있었으니까 아시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 휘장에 관한 부분은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아마 제본은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기관 자체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영용 위원

글쎄, 내규가 있으면 몰라도 내규가 있다면 다른 데서 안한 거고 내규가 없이 이렇게 했다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 이상해서 우리 도교육청 배지하고 대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 같이 맞춰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학봉 부장님,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8쪽에 권역별 교사 학부모 진로교육에 800명을 했는데 실제 권역별로 해서 학부모나 교사 해서 한 인원이 얼마씩 구분이 돼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1개 권역, 보은, 옥천, 영동 1개 권역, 또 증평, 음성, 진천, 또 청주, 청원 4개 권역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25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권역별 진로교육을 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쉽게 말해서 권역별 한 번씩 한 거구만

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네,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집에서 지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그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 **성영용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43쪽에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을 보며 하는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은 20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더 증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이번에 저희들이 9억을 들여서 돔 시설을 했고요, 천체관측체험센터도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교육과학연구원 위에 상층부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더 체험센터를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에 넣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이 정도로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없어요. 천체하고 올돌 입체 영화하는 거는요. 다만 저희들이 전시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수하고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외에도 시설면으로도 천체 관측이나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요즘에 3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 **성영용 위원**

아,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다음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제가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회계를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불협화음이 행정실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실 때도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 제가 살펴봐도 단재교육원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에 전에 비해서 크게 늘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회계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나 그 부분에 확대를 하셔서 앞으로 나가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현재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그 보수 교육이라도 계획을 좀더 세워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 국공장이 있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예,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우리 전통무예에 대한 제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도 넣어서 좀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있는 시설이고, 또 충분히 사대도 145미터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정도 그렇게 지어져서 나름대로 사대도 어느 정도, 여섯 사람 할 수 있던가요, 아마?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입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계 관련 된 것은 교장 연수라든가 혹은 관리자 연수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지표로 꼭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실무자를 모셔다가 강

사로 모셔다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국공장은 지금 청주고등학교 실내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를 훼손을 시켜서 그래서 올 봄에 그 업자들이 다시 하기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교감연수 및 자격연수에다가 교육과정에다가 2시간 내지 4시간씩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어심화연수 같은 것에서 국공을 해서 충북국공협회에 충주에 계시는 정 회장님 모셔다가 강의를 2시간 동안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성영용 위원

있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 특화 사업에 작은 친절에 작은 음악회 이게 어떤 건지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달에 와가지고 연수를 실시하다보니까 작은 음악회, 그래서 금년도 1월 4일부터 신규교사 추수지도서부터 개강식 때 그 작은 음악회 해가지고 현악5중주를 불러가지고 약 30분간 연주를 하고 또 수료식 때 국악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창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이것을 수료식 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 결과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

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장 리더십 강화 연수를 지금 라마다 호텔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것을 실시했더니 저도 이제 오늘 거기서 자고서 나왔지만은 교장선생님들이 그전보다 이게 많이 틀려졌다, 그러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에 60시간 이상 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이 작은 음악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성영용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축하드리고 좋은 사업 계속 유지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룡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서관에서 하기 힘든 부분 아닌가요? 또 그거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관계 이 부분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각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주시하고 협조나 예산 관계 어느 정도 받고 하고 계시는지 한번.....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희룡 평등교육은 아마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게 법규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성희룡 예방 교육은 직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 **성영용 위원**

이 타이틀이 고객이 신뢰와 만족을 느끼는 환경조성인데 저는 이거 보기에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 **성영용 위원**

청주시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관계는 청주시에서 지원 같은 게 있나요?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시의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이거 예산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비 장애인과 문화 체험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잘 더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니다.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지금 시각장애인 수가 청주 맹학교에 119명하고 충주에 약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학생수가 작기 때문에 10명을 하는데 충주에서는 오기가 어렵고요 청주 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해서 잘 되면 겨울방학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현재는 10명만 하고 있잖아요.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4,5,6학년 10명.

● 성영용 위원

확대해서 하면 큰 성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여름방학에 한번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겨울방학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좋도록 만들어야죠.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굉장히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행정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08년도에는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문화재 뿌리찾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셔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거 경하드립니다.

니다.

제가 우리 교육문화원에는 아까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영장 운영 관계, 참 손실이 많은데 최대한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비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은 좀더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요 주요업무계획에 11쪽에 도서관, 다양한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관 1일 체험이라든가 독서체험 관계는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업무의 일관성 있는 부분은 협조도 받으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서관 운영 부분은 중앙도서관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중앙도서관도 전문기관이고 저희들은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색사업에 국악한마당 오감 운동에 지도강사, 우리 교육청에서 국악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도

교사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 강사만.....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대부분 외부 강사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우리 지도강사, 국악 동아리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운영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청주 청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이런 거 확대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하고 있는데 난계 국악단하고 많이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부분도 한번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더 질 높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감사합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은 종합수련원에, 한번 이런 사업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각 교육청에서 Wee 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한 5박6 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학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같이 동화할 수 있는 시간, 그래

서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을 충분히 털어놓고 다시 나쁜 길로 들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답하지 마시고.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가족사랑캠프, 이거는 지금 현재 진천에서 3개교 212명만 했네요. 평가는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상당히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 성영용 위원

교직원 가족이에요, 교직원 가족.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학교의 학생하고 학부모입니다.

● 성영용 위원

아닌데. 대상에 교직원 가족이에요. 30가족 해서 120명 했잖아요. 우리 교직원들의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진짜 이것은 많이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진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임해수련원에서 더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예

● 성영용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교회 자리 매입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교회 자리는 지금 매입 거기 접촉하는 게 아니고 교회자리 그 옆에 김화식씨라고 서울 모.교수 되시는 분 산인데요 현재 매입 동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자리가 아닙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분은 가능하고 그 옆에 교회 자리 있잖아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그거는 교회 자리는 저희들이 현재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옆에 산입니다, 교회 지나쳐서. 한 2만 7천평 되는데 아마 소유주가 매매에 동의를 안해 주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입이 되도록.

● 성영용 위원

다음은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어민 교사 오는 사람들 자격이 태솔자격 외에 여러 가지 한 6개 부문에서 들어오잖아요 세부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그래 앞으로 우리 저기 외국어교육원에서 우리 토론토나 치코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쥐서 교육 갔다 온 사람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운영을 해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원어민

교사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증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외국에 갔다 온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외국인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실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동남아 쪽은 필리핀이나 이쪽은 이쪽은 인원이 적지만 대개 호주 쪽하고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증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런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서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용 위원

서수용 교육위원입니다.

원장님이나 관장님들의 철학과 비전이 기본이 된,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해와 열정이 가득 담긴 업무계획이 원안대로 잘 추진되어서 연말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조그마하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거 질문하겠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단재 원장님, 18쪽과 23쪽에 보편은 AT-Camp라는 게 있네요. AT-Camp가 뭐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입니다.

서수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T-Camp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를 연수시키는 것을 AT-Ca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단위 학교에서 우리 어떤 거에 대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이 오면은 거기에 가서 강사를 선임을 해서 강사를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직원들을 다 모셔놓고, 또 작은 학교는 이웃 학교하고 같이 해서 직원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데 거기에 교재비라든가 또는 강사료라든가 저희 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무엇인가를 제가 시험보는 식으로 답변 듣자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은 우리 계획서 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원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도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른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주석 처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아, 이 용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러면은 예를 들면 3S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짐작컨대는 스텐드, 스피드, 스마일 맞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예

● 서수웅 위원

저는 이거 몇 번 봐서 아는데 이런 좋은 단재에 가면 가장 좋은 인상이고 써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주석 처리를 해주면 처음 보는 분들도 이해가 쉽겠구나.

그리고 중앙도서관 18쪽에 보니까 수서방법, 요새 법률도 쉬운 용어 만들기를 하고 그러는데 수서방법, 짐작은 가요. 도서관.....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구입활동을 한다든지.....

● 서수웅 위원

예,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조금 뭔가 쉽고 다른 표현이 없을까 생각해 보신다든지, 저는 그렇더라구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느낌은 가는데 이런 것도 제공 차원에서 조금 주석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하세요.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종합수련원에 시우보우 캠프, 시우보우 캠프 아시죠? 도교육청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것 같은데 그게 한자어죠?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예

● 서수웅 위원

그것을 괄호 열고 한자를 써준다든지 알아보기 쉽도록 처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참 좋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과 신규사업을 새로 들어온 원장님들이 하시면서 만들은 원이 있는데 그 신규사업이 의도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시행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국어교육원의 우리 원장님은 “멋진 나, 소

중한 너, 상쾌한 눈, 평소의 삶의 어떠한 주체성이랄까 이게 잘 나타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계신데 신규사업에서 여기 참 아주 감동을 한 게 있어서 초등기본과정 운영에서 정말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성적 하위자를 1기 하는데, 그러니까 얼핏하면 성적 하위자는 소외되기 쉬운데 여기에 가서 영어를 한번 접해보고, 그 아이들 늘 성적에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계획이 이 아이들이 우리 원장님이 의도하신 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교육 소외계층 자녀 10% 배정, 이것이 좋은 정말로 눈에 띄는 시책이라서 잘 되기를 기대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 이동캠프 운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거기도 활용하는 아이들의 빈도가 적어서 늘 걱정을 했었는데 입소가 어려운 아이들을 현지에 가서 해 준다, 이 좋은 것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동캠프라고 그러고 입소대상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잘못하면 내가 무식하다고 할까봐 곤란한데.....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입니다.

사실은 이동캠프라는 의미를 우리가 짚

어보면 찾아가는 영어교실입니다. 그러면 그 날은 버스 한 대가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파견교사 모두가 가서 소외지역, 그것을 우선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12회, 열두 지역을 1년 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그 날은 거기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 서수웅 위원

나는 아무 상관 없어요.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찾아가는 이동캠프라고 그래놓고 입소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 찾아가는 곳을 우리가 대상으로 다 놓아야 되는데 입소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나서, 상관없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한 가지 아주 편한 건데, 거기 마당놀이 이번에 하죠?

●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난영

예, 마당놀이 하죠.

● 서수웅 위원

방송을 보면서 ‘야, 이런 차원까지 임대 가 들어가는구나’ 기왕 그렇게 시설을 해 뒀으면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거기 임대료를 많이 받습니까?

●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난영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뭘 물어보고 싶으나 하면 이런 공연도 와서 한다고 그러면 공연을 신청하는 주체가 많이 있는지, 앞으로 기대는 어떻습니까?

●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난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수웅 위원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이난영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공연장 대관일 30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학생회관의 대여 현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40회가 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왜 특별히 많이 됐느냐 하면 지금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관계, 공사 성무관 리모델링 관계로 저희가 사실 전 직원이 풀가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공연도 올 5월까지 꼭 차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화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백이 생기는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성 사업도 하고 또 수준 높은 문화공연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학생종합문화원 총무부장 이난영

작년 같은 경우 당초 예상보다 2,000만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 서수웅 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의례적인 인사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같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누차 느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점검해 왔던 것으로 단재연수원에 단재가 없고 교육연구원에 연구가 없다는 지적을 드려왔었습니다.

기관의 설립 취지나 본연의 업무가 미흡하거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었던 건데 단재교육연수원의 금년 계획을 보니까 일정 부분 보완되고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전시나 비치

인 듯한 인상이 아쉬움이 들고요, 이거는 연수원 측에서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단재일 교육장이라고 했던 비치 장소를 단재교육자료관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비치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름도 바꿨듯이 그런 성격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도 해왔었는데 혹시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연수과정 중에 시간 배정한 것이 있는지, 또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직원연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단재 연수원장 정인영입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 사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과정별로 그러니까 연수별로 교육과정에서 2시간 정도 단재사상에 대한 강의를 넣고 그래서 유명하신 강사님을 모셔놓고 지금 강의를 받고 있고 또 실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단재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계속 수집을 해서 얼마 전에도 그 단재 1937년도에 나온 책자가 또 한 분이 기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패까지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그래서 특히 자격연수에 일정이라든가

교감, 자격연수에 교수 요목에다가 집어넣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계획에 세우고 있는 중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우리 직원들의 단재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중국의 단재 선생님 자취를 고취할 수 있는 해외 탐방 연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실적을 주시사 해서 봤더니 거기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사이버 자료를 게시한 것도 있었던 것도 같고 또 금년 계획에도 보니까 홍보영상물도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검토할만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나름대로 좀 제안을 드린다면 지역이나 전국에 단재 선생님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협력이나 연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단재유적지 답사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 그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연수에 투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연수원의 운영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문위원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그 본청에서 하는 단재교육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원장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예

● 김병우 위원

그 부분도 가능하면 단재교육상이니까 본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본청에서 검토할 일이겠습니까만은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 단재 관련 단체 전문가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가 없다,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교육연구지에 원장님의 권두언밖에 실려있지 않은 것이 정말 의아하더라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두 편 정도 소논문이 있더군요. 이것은 보완 노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거듭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원은 일단 본연의 업무는 연구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곳에 연구관도 세 분, 연구사 12명, 또 파견교사까지 합쳐서 전문직이 1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연구학교 운영 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특별연구교사 지도, 그리고 대부분은 대회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일에 메이고, 뭐 체험학습 지도, 또 연찬, 상담, 하는 일이 굉장히 많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의 교육현안에 대한 그런 자체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드렸는데요 물론 업무가 많다보니까 참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여건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일정하게 공감할 합니다만은 연구원에서 본연의 업무인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연구를 하지 않는 어떤 연구사나 연구관님들이 남의 연구 지도를 한다는 것도 좀 공허하고 권위가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사실은 그 연구관님들 학교수업을 할 때도 학교수업 다 하시면서 연구 훌륭하게 하신 분들 아닙니까.

연구역량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업무가 과중하다면은 인원을 늘리거나 업무를 줄여서라도 충북교육 현안에 대한 연구만큼은 연구역량이 있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그 분들이 좀더 애써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혹시 충북교육현안 관련해서 연구한 실적, 정식 논문도 괜찮고, 소논문도 괜찮고 하다못해 리포트

라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제 게재된 그런 책자라도 있으면은 사본이라도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은 설립 이래로 교육연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사나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맡아오기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부분이 대천임해수련시설이 만들어지면서 학생종합야영장을 종합수련원으로 개편한 뒤에 학생수련 부분은 종합수련원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고 단재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재교육 기관으로써 또는 학부모 교육까지 이렇게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다보니까 이 학생수련원에서는 금년 사업계획 주요업무계획서 표제 타이틀처럼 체험중심 인성교육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학생들의 심신수련이라고 할 때 체험이 위주가 되는 신체단련, 수련, 또 그걸 통한 인성교육.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심신수련이라고 할 때 정신교육이나 가치관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맡고 있는가,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문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작년 올해 계속해서 주요 교육방침으로 기본이 바로 선 인재육

성, 일류 충북교육 이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바로 선”이라고 하면서 실천 5대 덕목은 여기에 놓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이것이 실천 5대 덕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품성, 에티켓, 자세나 태도, 이런 어떤 실천 항목에 중심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러다보니까 지향할 가치관이 약간 실종되거나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수련원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전문 연구사나 그런 분들이 필요할 텐데 만약에 그래서 수련원에서 할 본연의 일에는 약간 버겁다 할 때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생 정신교육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양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입니다.

김병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약 1만 2,977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을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한데 현재 기숙사 정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또 연수에서 우리 연구사님들이 한 분씩 맡고 있는 과정이 14.7과정을 맡고 있습니

다.

16개 시·도 연수원에서 지금 많이 맡는 데가 9.7과정, 10과정까지 맡고 있는데 저희는 연구사가 지난번에 하나 감이 되는 바람에 14.7과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상 지금 학생을 저희 연수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전에 연수원에서 학생간부 리더십 연수 같은 것은 했었죠?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예, 옛날에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때 학생 숙식시설이 뒷받침이 될 수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그때는 현재 쓰고 있는 청주고등학교 야구선수들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고등학교 야구하는 학생들이 그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하면은 이제 숙박시설은 기본이니까 거기에 지도인력만 보충이 되면 프로그램 개설은 어렵지 않겠네요.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간부 수련,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 10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스타리더십 함양교육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이라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련원 시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레크레이션이나 수련활동도 들어가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리더십 함양 부분에도 그런 가치관이나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보강이 되면 좋겠다 싶고, 또 일반 학생 수련에도 꼭 그런 체험중심의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가치관 부분의 교육프로그램도 보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필요한 인력이 연구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강을 하더라도 그렇게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중에 학생 자가 붙어 있는 직속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상이 학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분명히 학생도서관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도서관입니다.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중앙도서관 하면 언뜻 생각에 이게 지자체 소속이 돼야 되지 않는가. 운영이나 관리를 지자체에서 맡고 또 지원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기관 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도서관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거나 각 지역도서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그러면은 충청 도내 각 지자체들이 관할하는 지자체들의 도서관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도교육청 직할 기관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이나 시설이나 운영이나 관리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치는 도 단위 광역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아마 충청북도라는 것을 명칭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법에 보편은 대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에 관한 것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는 아직 도 조례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해서 대표 도서관을 만든 데가 부산광역시하고 제주도, 대전광역시만 아마 도 조례를 만들어서 대표 도서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대표 도서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하고.....

● 김병우 위원

대표 도서관이 아직 충북에는 그럼 없다는 얘긴가요?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아직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충청북도중앙도서관도 분명히 설치 근거조례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중앙 정책하고 안 맞았던지 어쨌든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편제가 돼 있어서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을 텐데요 이후에 과연 그러면 별도로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대표 도서관이 만들어질 필요나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지금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도청에서 준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 김병우 위원

우리나라 자치제도가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약간 분할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할 분담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의 시책도 그렇지만 특히 도서관 관련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공교육 기관,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영역보다는 일반자치 쪽에서 훨씬 더 책임도 가지고 예산배정도 해서 지원도 하는 이런 구조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서 노력이라고 그럴까요, 도나 이런 지자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제가 지금 충청북도 내에 공공도서관끼리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정보교환이라든가 문제점 등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주문을 해서 빨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리 대표 도서관을 설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 단위 보다는 도 단위 도서관에다가 아마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아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계획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방문객들을 고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그 고객이 학생들보다는 주민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죠?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일반주민이 많습니다, 학생들보다는.

● 김병우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성격이나 역할을 규정하는데 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지금 영동에 있는 행정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주중동으로 옮겨가실 거죠?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계획이 금년 계획서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지금 건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6월 중에 끝나면, 지금 진행중인 과정에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옮기다보면 8월경쯤.

● 김병우 위원

금년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옮길 때는 됐을 텐데.

●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계속 운영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학교육연구원에 여쭙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곧 또 이어서 독립 직속기관으로 교육정보원이 설립되지 않겠습니까?

그 설립업무는 지금 어디서 맡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지원부에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후에 그것을 그냥 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대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설립사무를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글쎄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청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견 뭐 사소한 부분이지는 하지만 계획서 전체 틀을 제가 보다보니까 계획서 틀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획일적인 것보다는 각 직속기관들의 특성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성적으로 돼 있는 게 차라리 좋게 보입니다. 서로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취향의 차이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의 그 계획서 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 눈에 쏙 들어옵니다. 담당이라든지 사업근거라든지 평가계획까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인쇄소에다가 이렇게 말긴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기획한 실무자께서 직접 편집하셨을 것 같은데 단지 편집 솜씨가 아닌 기획력인 것 같아서 아주 좋게 보입니다.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관항목 개념이 확실한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질도 보니까 너무 고급스럽거나 호사스럽지 않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귀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업무에서 김병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만, 사업이나 행사, 또는 거기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간행물들이 연구 업무보다는 과학 쪽에 많이 치중돼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연구 업무쪽으로도 앞으로 비중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단체교육연수원요, 이상일 위원님, 성영용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신규교사들 연수 때에는 정말 기본생활, 교사 자신입니다. 교사 자신에 대한 기본생활, 직장에서의 적응, 또는 학부형 관계, 사회생활 이런 거. 이론적으로는 잘 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초생활이 선생님 스스로가 안돼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나오는 선생님들이요 주변 자꾸 어질러 놓기만 하지 안 치웁니다.

주변 교사 책상 주변 가보면 엉망여. 책꽂이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저게 어떻게 해서 국어책을 찾고 거기서 사회책을 찾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나 싶을 정도로 영터리인 분들이 열이면 아홉 이상입니다.

이게 신규교사 연수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변 정리하는 것부터 배워서 나와야겠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도서관 업무 중에서 안전하고 영양 있는 구내식 과제가 보니까 고객을 신뢰받는 그런 데서 나오는데 거기서 고객을 상대로 급식을 합니까?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지금 저희가 자체 상조회를 운영, 구성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고객들한테?

●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예, 그렇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고맙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원하고 수련원하고 도서관을 한꺼번에 드릴 말이 있어서.

그 세 기관에서는 서로 유사업무가 많은 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맞대고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교육문화원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활동, 또 수련원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바다 캠프 운영,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한 군데서 잘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효과도 더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원어로 만나서 그림책, 이것은 오히려 도서관 쪽에서 더 어울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찾아가는 여가문화교실 운영 수련원에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오히려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으니까 기관장들끼리는 서로 너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이런 거는 우리한테, 우리가 계획한 이런 업무는 너희한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원, 지금 중부 4군을 중심으로 본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남부센터, 북부센터, 청주센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업무는, 직원 조직이 서로 다르더라도 업무는 본원에서 해 줘야 될, 지원해줘야 될, 교육과정을 짜는 것까지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주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지역교육청들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직속기관장들은

이게 서로 다른데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잘 만들었던거 그래요. 이런 체계도 통일해 주시고 또 외래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 용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수 언어, 이런 것들은 좀, 아까 서수용 위원님 주문했는데 각주를 해서라도 이해를 돕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간에 서로 업무조정을 해서 능률을 높이는 생각을 하면서, 딱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종료)

[직속기관주요업무계획보고]

○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성영용, 서수웅,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김학봉, 단재교육연수원장 정인영,

중앙도서관장 홍준표, 학생교육문화원장 안세열,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영구,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경식.

(별첨 4)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2. 10.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2월 8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2월 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 회 지)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표창 시 함께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함
- 표창대상을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함(안 제2조)
-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표창권자를 교육감 및 교육장 등으로 정함(안 제8조)
- 표창 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副賞)의 종류를 구체화(우승기, 우승 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함(안 제9조제2항)
-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표창권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유족 등 대리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장의 표창 수여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 다른 조례의 개정

본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부칙에서 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함

1.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2.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 다음 각호의 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의 종류를 변경하고 표창 시 수여하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 제명을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 표창 대상을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로 정하여 제명 변경에 따라 대상자를 수정하고 구체화한 것이며,
 - 안 제5조 부터 제7조에서 표창의 종류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 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수여 기준을 정한 것임.
 - 또한, 안 제8조에서 표창권자를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명시 하였으며,
 - 안 제9조 제2항에서 표창 종류에 따른 표창방법과 표창 시 함께 수여할 수 있는 부상의 종류를 구체화 하였고,
 - 안 제10조 부터 제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화 하였으며,
 - 안 제14조 부터 제17조에서 표창권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표창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과,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직접 수령이 불가 할 경우 대리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조항, 본청 직속 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시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 부칙에서 본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한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표창목적, 표창대상, 표창의 종류, 표창방법 및 부상, 공적심의위원회 설치 사항 등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여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문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공적심의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추후 타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적심사”라는 용어를 “공적심의”로 개정할 필요성과,
안 제9조제2항(표창방법 및 부상)에서 부상의 종류를 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으로 구체화함에 있어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등은 금전과 직접관련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성 있다고 사료 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2. 10.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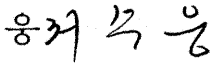
위원장

김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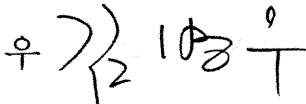
간사

서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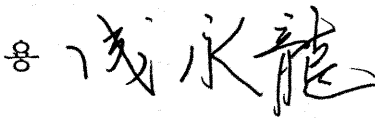


위원

김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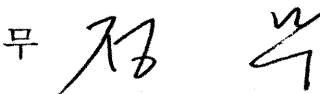
성영용



이상일



정무



第23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89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20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2월 8일 (월요일) 11시 12분

議事日程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審查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
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견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부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부웅

저를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건이 행정기관표창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로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바라면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15분)

● 위원장 김부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영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서수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교육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수웅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방금 인사를 하셨던 김부웅 위원장님을 돕고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사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7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 **위원장 김부웅**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행정기

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상하고 우등상의 차이가 내용상 읽어보면 공적상은 봉사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우등상은 무슨 체육대회나 기타 우수한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데, 공적상 또 우등상 거의 대동소이한 기분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과 창안상 이런 부분은 창안상 하게 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의미가 더 깊지 않나 또 협조상은 아주 닿는 감이 아주 이상해요. 교육감상을 타기 위해 교육청에 협조했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와서 굉장히 조금 문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상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초안이 잡혀있는지 기초안이 잡혀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그거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공로상이고 우등상은 어떠한 실적을 우수한 실적을 거행했을 때 주는 것이 우등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상은 일종의 감사장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장. 민간인들한테 주는 감사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협조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그거 아까 위원님들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성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감사장하면 괜찮은데 협조상하니까 뭘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감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근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정부표창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와서 그것하고 같게 하다보니까 용어를 그거하고 똑같이 채택을 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거기와 같이 그런 성질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일반 감사장은 교육감상은 공적이 있는 걸로 해서 어떤 부가점수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감사장 같은 건 안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대개 공로상 이런 것이 되고요. 협조상은 민간인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협조상에 대한 그 부분은 민간인에 관한 것은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하게 되면 명시를 해 주면 나중에 해당 과에서 일 처리할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조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대외적으로 해서 그렇다면 3번 협조상에 대한 그 내용 대외적으로 충북 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하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했다면 그 구성원이 대내적에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받는 어감이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잘 해야지 왜냐 하면 안을 잘해 봐야지 나중에 실제 집행하는데 문제가 안되지 그냥 편하게 받아왔다가는 그걸 가지고 얘기했다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총무과장 황익상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요 안은 저희들이 2008년도 교육부 표준안을 갖고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제 협조상 같은 경우는 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간인이나 그런 표시는 안되어 있더라도 내용 문구를 보면 지금 대외적으로 충북 교육의 명예나 지위를 선양한 자 또는 지도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조상 같은 건 어감 자체는 이상하지만 대내적으로 행정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표창 같은 감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부상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마치신 겁니까?

● 성영용 위원

마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표창규정의 취지나 문안과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학교단위에서는 시상규정 같은 게 또 정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 근무할 때 느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전적 의미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어떤 개념차이가 있는지 여쭙보려고 하는 건데요.

표창하고 상하고 그 차이가 지금 뒤에 보니까 별지 서식에 표창장양식이 따로 있고 상장양식도 따로 있고 감사장양식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단위에서 표창은 주로 공적 같은 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행사 같은 데서 기념행사 같은 데서 주는 것이고, 상장은 어떤 실적에 따라서 무슨 경연대회라든지 무슨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등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위로 주는 게 상장이라고 이렇게 알아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조례에서 얘기하는 표창

은 그 상의 개념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가 일단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황익상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등상은 뭐 육상을 해서 1,2,3등 순위가 났다던가 교원들이 무슨 연구를 해 갖고 1등급이 됐다던가 구분되는 건 저희들이 상장으로 주고 있고요.

표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표면적으로 직무수행에 교육·학예의 이익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 그레 갖고 안나타나는 부분은 표창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여기 보면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 '상'자가 붙은 것은 위에다가 상장하고는 우등상 누구누구, 공로상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문안을 적절히 해서 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장의 개념 속에 들어서, 그러면 뒤에 있는 양식 중에 표창장이나 감사장은 위의 본 조례 내용의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이 운영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 봐도. 그런데 정부표창 규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통일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운영상은 지금이나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9조에 보니까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공적상과 창안상은 종래 표창장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등상은 상장 그 다음에 협조상은 감사장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단위에도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서수웅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차원에서 요번에 해당 되는 분야가 있나 봐요.

그런데 먼저 번에 우리가 조례 일부

나 전부 개정 몇 가지 할 때 용어 정비 차원에서 몇 개 있을 때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때는 이번 기회에 다른 조례도 용어를 정비할 것이 있나 찾아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요번에는 그거하고 다르고 정부 포상기준에 따라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혹시 다시 또 용어 때문에 손을 봐야 할 조례가 없는지 살펴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요다음에 그걸 개정을 할 때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 간사 서수웅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왜 그랬느냐면 똑같은 용어인데 어느 조례에는 이미 손을 봤고 어느 조례는 뒤로 미뤘다 자꾸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는 게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의 공적심사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부 포상규정이 바뀐에 따라서 공적심의위원회로 바꾸나 보죠.

그러면 혹시 요 조례에 그렇지만 다

른 어떤 분야에서 공적심사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공적심사라는 용어가 있으면 그것도 공적심의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 총무과장 황익상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기에 조례 개정할 부분에 넣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서수웅

조례가 아닌 부분에도 그런 게 있다면 살펴보셔서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총무과장 황익상

예, 맞습니다.

● 간사 서수웅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교육위원 정무입니다.

전에는 상을 줄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상을 타려면 교육장상을 타야 준다 또 장관상을 타려면 교육감상

이 있어야 준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 총무과장 황익상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그전에 한번 교육감이나 교육장 표창 받는 걸 기피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정인영 교육감 시절에 한번 적용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장상도 없고 교육감상도 없는데 장관상을 준다 또 대통령상을 준다 이런 적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익상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후반에 한번 그걸 적용했었는데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이래 보면 장관표창이나 중앙기관장이 주는 건 선호하지만 교육감표창이나 교육장표창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 정무 위원

그게 뭔가 상을 줄 때 위계질서랄까 뭐 그런 것 마냥 교육장상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상을 준다든지 이런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 총무과장 황익상

그 당시에는 시행하다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내던데요. 하위 것이 없으면 차상위 것을 못 타는 걸로다.

● 정무 위원

글쎄,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 총무과장 황익상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요즘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예,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행정부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행정부관표창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제237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서수웅,
위원 김병우, 성영용,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총무과장 황익상,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0. 2. .

위 원 장

김 부 용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2. 8. (월) 16 : 00	<p>[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장 선출의 건2. 간사 선출의 건3. 의사일정 결정의 건4.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